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4:00
담당자	안상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770, ahn@kdi.re.kr)
배포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 KDI,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 기간: 12월 17일(월)~18일(화)
-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주최: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
- 후원: 기획재정부, 매일경제신문사

- KDI는 12월 17일, 18일 양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과 공동으로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을 개최함.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소득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세미나의 기조세션은 ‘디지털 시대의 혁신, 생산성, 소득 불평등’, ‘AI 주도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전략 및 정책에의 시사점’, ‘기술·경제 관계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등 총 세 개의 기조발제로 구성
  - 첫 번째 기조발제에서는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이 “혁신은 생산성 증대의 핵심 동력이지만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소득양극화를 확대시킨다”라고 진단하며 ‘디지털화’를 소득불평등의 핵심동인으로 꼽음.
  - 이어진 두 번째 기조발제에서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교수는 “기업은 혁신 과정에서 개방전략과 보유전략을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복합적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마지막 세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한국경제를 “혁신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술·경제 제도 및 시스템을 장기적·지속적으로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
- 「세션1. 인적자원과 일의 미래」에서는 박윤수 KDI 연구위원이 ‘인지역량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표,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활용해 국가별 인구의 인지의역량의 분포 및 공공-민간부분 간 배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
- 「세션2. 혁신과 포용을 위한 기업생태계」에서는 정성훈 KDI 연구위원이 한국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혁신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

- 「세션3. 혁신과 포용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평생학습」에서는 정재용 KAIST 교수가 한국의 과학기술 추격 방식과 혁신주도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원활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출권<sup>1)</sup>(social drawing rights)을 기반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
  
- 「세션4. 포용적 혁신 공간 창출과 지역경제」에서는 알렉산더 렘브케 OECD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가 지역 경제의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 혁신성장의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교수, 진소강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등이 참석해 혁신과 포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연사 프로필**
-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1) 사회적 인출권(Social drawing right): 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가 주장한 개념으로 교육훈련, 휴가, 직업체험 등에 있어 근로자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의미

## ❖ 첨부 1. 세부 일정

일 자	프로그램
12. 17(월)	1일차
14:00~14:20	<b>개회식</b> <b>개 회 사</b> 최정표 KDI 원장 <b>환 영 사</b>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30~16:00	<b>기조세션.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도전</b> <b>발 제 1.</b> 디지털 시대의 혁신, 생산성, 소득 불평등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b>발 제 2.</b> AI 주도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전략 및 정책에의 시사점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교수 <b>발 제 3.</b> 기술-경제 관계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16:00~16:10	휴 식
16:10~17:40	<b>세 션 1. 인적자본과 일의 미래</b> <b>사 회</b> 안상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b>발 표 1.</b> 일의 미래: 모두를 위한 기회인가, 아니면 포용에의 위험요소인가? 스테인 브루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선임이코노미스트 <b>발 표 2.</b> 인지역량의 국제비교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b>토 론</b>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 18(화)	2일차
09:30~11:00	<b>세 션 2. 혁신과 포용을 위한 기업생태계</b> <b>사 회</b>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b>발 표 1.</b> 세계적인 기술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글로벌 IP M&A 트렌드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b>발 표 2.</b> 한국 제조업체의 혁신활동에 관한 실증적 발견과 혁신정책에의 함의 정성훈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b>토 론</b>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11:00~11:10	휴 식

<p><b>11:10~12:40</b></p>	<p><b>세션 3. 혁신과 포용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평생학습</b></p> <p><b>사회</b> 김정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p> <p><b>발표 1. 한국의 과학기술 추격 메커니즘과 리더십으로의 전환</b> 정재용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p> <p><b>발표 2.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b>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p> <p><b>토론</b>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p>
<p><b>12:40~14:00</b></p>	<p><b>오찬</b></p>
<p><b>14:00~15:40</b></p>	<p><b>세션 4. 포용적 혁신 공간 창출과 지역경제</b></p> <p><b>사회</b> 서정해 한국지역정책학회 회장(경북대학교 교수)</p> <p><b>발표 1. 추격을 통한 포용: OECD 지역 및 도시가 주는 시사점</b> 알렉산더 램브케 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p> <p><b>발표 2. 중국 혁신허브 항저우</b> 진소강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p> <p><b>발표 3.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생산성과 기업동학</b> 안상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p> <p><b>토론</b>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강수 KDI 선임연구위원</p>
<p><b>15:40~15:50</b></p>	<p><b>휴식</b></p>
<p><b>15:50~17:30</b></p>	<p><b>사회</b>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p> <p><b>종합토론</b>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교수 진소강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p>

## ❖ 첨부 2. 연사 프로필

### 기조세션.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도전

#### 발 제 1. 디지털 시대의 혁신, 생산성, 소득 불평등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 現 OECD 경제국 부국장
- 前 OECD 경제국 부서장
- 前 OECD 경제국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OECD 경제국 이코노미스트
- 前 캐나다 재무부 선임이코노미스트

#### 발 제 2. AI 주도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전략 및 정책에의 시사점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교수



- 現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기술관리혁신과 교수
- 前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미술랭 장학사업 단장
- 前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사사가와평화재단 연구위원
- 前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부교수
- 前 히토츠바시대학 혁신연구소 부교수,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EITI) 양적연구 선임연구위원 및 선임매니저

#### 발 제 3. 기술-경제 관계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 現 『지식재산연구』공동편집위원장
- 現 KDI 선임연구위원
- 前 OECD 개발센터 선임이코노미스트

### 세션 1. 인적자본과 일의 미래

#### 발 표 1. 일의 미래: 모두를 위한 기회인가, 아니면 포용에의 위험요소인가?

스테인 부르크 OECD 고용노동사회국 선임이코노미스트



- 現 OECD 이코노미스트
- 前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 前 영국 공무원 소속 이코노미스트
- 前 모잠비크 보건부 이코노미스트 겸 해외개발연구소 연구위원

#### 발 표 2. 인지역량의 국제비교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前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세션 2. 혁신과 포용을 위한 기업생태계

### 발 표 1. 세계적인 기술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글로벌 IP M&A 트렌드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 現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
- 前 요즈마그룹 한국법인장 수석투자심사역
- 前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 아시아경제자문관

### 발 표 2. 한국 제조업체의 혁신활동에 관한 실증적 발견과 혁신정책에의 함의

정성훈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 前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개발연구실 연구위원

## 세션 3. 혁신과 포용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평생학습

### 발 표 1. 한국의 과학기술 추격 메커니즘과 리더십으로의 전환

정재용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 現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 現 기술경영경제학회 27대 회장 및 공학한림원 회원
- 現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부편집장
- 前 KAIST 탈추격혁신연구센터장
- 前 KAIST IT 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

### 발 표 2.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제도분과 위원
- 前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세션 4. 포용적 혁신 공간 창출과 지역경제

### 발 표 1. 추격을 통한 포용: OECD 지역 및 도시가 주는 시사점

**알렉산더 렘브케** 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 現 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지역혁신, 인프라, SME 성과 및 생산성 경제분석 프로젝트 총괄
- 前 OECD 지역개발트렌트센터 공간효율연구소 이코노미스트
- 前 OECD 공공거버넌스 및 국토개발부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애널리스트
- 前 월드뱅크그룹(런던 지부) ST 컨설턴트
- 前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강의 교수

### 발 표 2. 중국 혁신허브 항저우

**진소강**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 現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겸 선임연구위원

### 발 표 3.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생산성과 기업동학

**안상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자문관
- 前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KDI 경영지원본부장
- 前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 종합토론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 現 『지식재산연구』공동편집위원장
- 現 KDI 선임연구위원
- 前 OECD 개발센터 선임이코노미스트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 現 OECD 경제국 부국장
- 前 OECD 경제국 부서장
- 前 OECD 경제국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OECD 경제국 이코노미스트
- 前 캐나다 재무부 선임이코노미스트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교수



- 現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기술관리혁신과 교수
- 前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미술랭 장학사업 단장
- 前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사사가와평화재단 연구위원
- 前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부교수
- 前 히토츠바시대학 혁신연구소 부교수,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EITI) 양적연구 선임연구위원 및 선임매니저

**진소강**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 現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자원환경연구센터장 겸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現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現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
- 前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
- 前 한국행정연구원 정보자료실장
- 前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방문학자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 現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 現 오픈서베이 이사
- 前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 前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문위원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 기조세션.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도전

### 기조발제 1. 디지털 시대의 혁신, 생산성, 소득 불평등

#### 알랭 드세르 OECD 경제국 부국장

- 디지털 시대의 혁신은 새로운 생산성의 역설<sup>2)</sup>을 만들고 최상위소득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확대
  - 혁신은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소득양극화를 초래,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
- 1990년대 이후 GDP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남.
  - 생산성의 정체는 노동소득의 기여를 감소시키지만 임금격차를 확대해 다수의 국가에서 실질소득이 정체됨.
- 디지털화는 소득불평등의 핵심 동인으로 승자독식의 반경쟁적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음.
  - 선도기업과 후발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ICT집약서비스 산업에서 현저히 나타남.
  - 국가 간,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디지털기술의 채택 및 효과적인 활용력 차이와 연관
  -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 국가의 경우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괴리현상이 기술 선도기업에서 두드러짐.

2)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2000년대 중반 이후 관찰되는 현상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OECD 국가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상당히 저하된 것을 의미

## 기조발제 2. AI 주도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전략 및 정책에의 시사점

카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학 공과대학원 교수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新)IT와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통적인 IT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두 가지 모두 '차세대 범용기술(GPT)' 활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신(新) IT는 다수의 생태계로 이뤄진 구성적 특징을 지님.
- 논문 출판 활동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오픈 사이언스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독점기술이 AI 발전 속에서 혼재함.
  - 이는 논문출판과 특허출원에서 민간부문 연구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 기업이 독점 특허권을 활용하여 경제적 지대를 도모하는 행위는 과학 (출판)과 혁신(특허)이 동시에 발생하는 AI분야에서 주로 발견됨.
-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관리와 정책적 함의 두 측면에서 제언함.
  - (경영관리 측면) 기업은 혁신 과정에서 개방전략과 보유전략을 결합해 활용해야 함.
  - (정책적 함의 측면) 정부는 정책 이행 시 복합적인 생태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 기조발제 3. 기술-경제 관계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자본·노동 투입 증가율 감소, 생산성 향상 부진 등으로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GDP 대비 R&D지출, 노동인력 당 연구원 수 등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지만 투입 대비 혁신 성과는 저조
-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술-경제 시스템 관련 제도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
    - (시장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
    - (인재 혁신)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 개선
    - (기술개발체제 혁신) 기술정책의 목표를 개방형·연결형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고 유연한 조직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
    - (지역·산업 혁신) 민간 자본을 신기술·혁신형 사업에 투입, 일자리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일자리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개편
  - 한편 경제발전 비전 제시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에 대한 기득권 저항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세션 1. 인적자본과 일의 미래

## 발표 2. 인지역량의 국제비교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sup>3)</sup>를 활용해 인구의 인지역량 분포 및 배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인 역량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숙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리력 점수의 상위 1%(99 백분위)에서 한국은 33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인 반면, 점수의 중앙값(50 백분위)과 하위 1% (1 백분위)에서는 33개국 중 각각 20위 및 8위
  - 분포의 상단을 비교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이 전반적인 역량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
- 국가별 인지역량의 공공-민간 부문 간 종사자의 배분과 평균 인지역량 차이를 추정, 한국은 고숙련 인력의 공공부문 종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지역량 우위가 뚜렷한 특징을 보임.
  - 공공부문 종사자의 수리력 점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유사한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 약 9.8점 높았고, 이는 33개국 중 가장 큰 차이
    - 한국, 미국, 일본의 공공-민간 부문별 수리력 점수 분포를 비교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분포의 최상단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우위가 뚜렷
    - 공공-민간부문 간 전체적인 수리력 점수 분포를 보면, 미국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은 분포의 중·하단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우위가 발견됨.

3)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OECD가 2011~15년 중 33개국 16~65세 인구 약 20만 8천명의 인지역량(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측정할 자료

## 세션 2. 혁신과 포용을 위한 기업생태계

### 발표 2. 한국 제조업체의 혁신활동에 관한 실증적 발견과 혁신정책에의 함의

정성훈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 한국 제조업체의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
- 한국의 기술혁신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수입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상이하게 나타남.
  -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한 반면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활발할 때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위축됨.
    -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시계, 항공·우주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수입경쟁이 심화될 때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저하로 이어짐.
- 한국의 경영혁신은 기술혁신 수준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인사 및 인센티브에 대한 경영방식의 낙후성과 개선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미국 인구조사국의 서베이 방법을 활용해 국내 사업체들의 경영방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인사 및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혁신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
  - 현재의 혁신정책은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 차원의 역량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
  -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세션 3. 혁신과 포용을 위한 과학 · 기술혁신정책과 평생학습

## 발표 1. 한국의 과학기술 추격 메커니즘과 리더십으로의 전환

정재용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 지난 30년간 한국은 추격학습에 기반한 기술역량을 쌓으며 급속한 성장속도를 보임.
  - 선진기술을 빠른 속도로 학습한 후 이를 개선·개량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량생산방식과 공정혁신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쌓음.
- 혁신주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식과 전환 두 측면의 조건 필요
  - (인식 측면) 한국이 추구하는 혁신이 선진국의 혁신보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한국형 담론'을 제시해야 함.
  - (전환 측면) 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 혁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비기술적 역량과 다양한 분야의 고도화된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함.

## 발표 2.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은 사각지대와 직능사업보험료 등 두 가지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55.1%)과 적용 노동자(59.5%)가 충분치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중소기업(10%), 임시직(17.7%) 등 참여가 저조한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직능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150인 이하 0.1%, 150-999인 0.5%, 1000인 이상 0.7%의 비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사회적 인출권<sup>4)</sup> 기반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편이 필요
  - (유사)자영업자, 프리랜서, 도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클라우드 워커 등 비전형적 노동자의 지속적 증가를 감안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모색해야 함.
- 사회적 인출권 기반의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직업능력개발계좌’, ‘경력개발상담서비스’,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구성할 수 있음.

4) 사회적 인출권(Social drawing right): 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가 주장한 개념으로 교육훈련, 휴가, 직업체험 등에 있어 근로자들의 폭넓은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의미

## 세션 4. 포용적 혁신 공간 창출과 지역경제

### 발표 1. 추격을 통한 포용: OECD 지역 및 도시가 주는 시사점

알렉산더 렘브케 OECD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지역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 최근 OECD 보고서 '글로벌 세계의 생산과 직업', '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2018'을 통해 지역 잠재력 활용 방안을 발표
  -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지역 잠재력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
- OECD 국가 중 불평등을 극복한 지역들은 무역이 활발한 부문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기능통합을 통해 성과를 거둠.
  - 무역 부문의 성장이 갖는 위험요소를 알아보고 무역 부문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살핌.
  - 각 지역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

## 발표 3. 포용적 성장과 지역경제: 생산성과 기업동학

안상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지식기반 자본의 중요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혁신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인이며, 그 동안 혁신과 경제 성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있음.
  - 이에 따르면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혁신성장의 핵심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임.
  - 혁신성장의 과정은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기존 기업과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위협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신산업이 등장해 기존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산업구조 전환
- 혁신 성장의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와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